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9월호 후.보.도.서.

나는 외과의사다



강구정 지음 | 사이언스북스 | 268쪽 | 값 13,000원

외과의사인 저자가 의료계의 현실과 임상체험을 고루 드러내면서 의사와 환자 간 사회적 소통의 맥락을 짚어낸 깊이 있는 논픽션 성과물이다. 의사라는 직업세계와 의료계 현실을 차분하게 전달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백승중 지음 | 돌베개 | 488쪽 | 값 18,000원

16세기 선비 김인후의 삶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되, 그 방법을 가상토론에서 찾은 독특한 구성의 역사 에세이다. 이런 구성으로 인해 이 책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교류하고 조응하는 이중의 독서를 가능하게 해준다.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유진보 지음 | 전인초역주 | 아카넷 | 616쪽 | 값 30,000원

국제성을 띤 지명학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돈황의 학문적 가치를 집대성한 책이다. 돈황유서, 돈황석굴예술, 돈황역사지리까지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크로드 통로였던 돈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지의 자료까지 모았다.

포도나무집 풍경



김영현 지음 | 북폴리오 | 368쪽 | 값 8,500원

중견작가 김영현의 소설선집으로 암울했던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한 저자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다. 시대의 마이너리티, 혹은 주변부 인생들을 소재로 한 8편의 중단편에 민중들의 자화상이 깃들어 있다.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이원섭 지음 | 필맥 | 336쪽 | 값 13,000원

논란이 되고 있는 햇볕정책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현실정치와 연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정치사회학 저작이다. 언론인의 시각에서 본 남북화해의 방법론과 햇볕정책의 득실을 현실감 있게 짚어냈다.

인생의 사용



함정임 지음 | 해냄 | 296쪽 | 값 10,000원

소설가 함정임 씨의 프랑스 여행 에세이다. 단순한 여행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파리의 문화와 역사를 산책함으로써 파리에 대한 고정화된 시각을 깨트린다. 프랑스 예술가들의 생각 답사와 전위예술의 현장 등을 담았다.

문학의 숲에서 느리게 걷기



오생근 지음 | 문학과지성사 | 408쪽 | 값 16,000원

우리 문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시인 소설가들의 작품에 대한 비평과 '느림'의 문학론을 함께 실은 중진 평론가의 비평집이다. 황동규 최하림 기형도 황인숙 나희덕 등의 시와 최인훈 이청준 황석영 등의 소설세계를 '느림'의 시선으로 분석했다.

내가 만난 일본미술 이야기



안혜정 지음 | 아트북스 | 264쪽 | 값 15,000원

민족감정 탓에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는 일본 미술 에세이다. 12세기부터 18세기의 일본 미술을 다루면서 세계 속의 일본미술, 중국·한국 간의 차이, 일본 미술사의 맥락 등을 꼼꼼히 언급했다. 일본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덕목 중 하나다.

인문학의 꽃 미술사학, 그 추체험의 방법론



강우방 지음 | 열화당 | 368쪽 | 값 20,000원

미술사학이 왜 인문학의 꽃인가 하는 관점에서부터 미술사학 전반을 아우른 예술론이다. 특히, 기획전이 미술사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가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었고, 국립박물관 오십 년의 역사를 간추려 실었다.